

그레이엄 그린의 사랑과 희망의 비전: 아버지 관계를 중심으로*

이 광 희
(공주대학교)

Lee, Kwanghee. "Graham Greene's Love and Vision of Hope: Paternit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1 (2018): 107-127.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e theme of Graham Greene's love and vision emphasized by paternity. As Erdinast-Vulcan says, there are three types of fathers in Greene's novels: the biological father, the metaphorical father and the Father in Heaven. The relationship of the biological father is destined to be spontaneous. The relationship of the metaphorical father is embodied by the protagonists. Greene develops the relationship of the metaphorical father into the love and responsibility for neighborhood. In *Monsignor Quixote* the atmosphere of the novel is headed for afterlife world. Monsignor Quixote loves his neighbors with brotherly love because every man is equally a son of God. And also he considers such love to be connected with the vision of hope. (Kong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Despair, Responsibility, Love, Paternity, Vision of Hope

I. 서론

그레이엄 그린(Graham Greene)은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가톨릭 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종교소설은 『브라이튼의 막대사탕』(*Brighton Rock*)으로 시작하여 『권능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 『사랑의 종말』(*The End of the Affair*)에 이르러 1차

* 이 논문은 2017년 공주대학교 인문사회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적인 종교소설의 대단원을 이루고, 그 후에 발표한 『타버린 환자』(*A Burnt-Out Case*), 『명예영사』(*The Honorary Consul*) 그리고 『키호테 신부』(*Monsignor Quixote*)도 주요한 그의 종교소설이다. 그러나 그린의 소설 전체를 언급하려면 사회의식이나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식을 피력하는 정치소설과 스파이 조직 등을 다룬 오락물 등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종류의 소설들로는 최초의 장편소설인 『내부의 사나이』(*The Man Within*)에 이어 『스там블 기차』(*Stamboul Train*)가 있고, 최초의 정치소설인 『전장』(*It's a Battlefield*), 『조용한 미국인』(*The Quiet American*), 『아바나의 요원』(*Our Man in Havana*), 『인간의 요소』(*The Human Factor*) 등의 정치소설과 그 외에도 『코메디언』(*The Comedians*), 『대위와 적』(*The Captain and the Enemy*) 등이 있다.

이처럼 그린의 소설을 종교소설, 정치소설, 오락물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작품의 주제에 의한 분류를 한 것인데, 그린의 소설 전반에 걸친 작품구성상의 특징을 살펴 볼 수도 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린의 스토리를 전개할 때 즐겨 사용하는 스릴러(thriller) 기법이다. 그린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킴으로써 박진감 넘치는 극적 구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스릴러 기법을 스파이 소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린의 대표적인 종교소설인 『권능과 영광』에서도 이것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고, 정치소설인 『인간의 요소』에서도 그렇다. 다음으로는 그린의 스토리를 전개할 때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소설의 기법을 이용하여 시간을 거슬러서 회상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옛날의 기억, 기록물을 보여주는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보여주기도 한다. 종교소설인 『사랑의 종말』이 이런 기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소설이고, 정치소설인 『인간의 요소』에서도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의 주제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에서 공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스토리의 구성에서 아버지 관계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이 가톨릭 작가이기 때문에 아버지 관계는 그가 의식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곧 아버지 관계로 우주적 맥락에서 핵심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 관계는 크게 보면 그린의 모든 종교소설에서 전제하고 있는 기본관계라 할 수 있다. 그린의 종교소설 중에서 아버지 관계가 보다 강조되고 있는 작품은 『권능과

영광』과 『명예영사』를 들 수 있다. 물론 그린은 그의 소설에서 아버지 관계를 종교적 의미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육신적 아버지 관계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권능과 영광』과 『아바나의 요원』에서는 친 부녀관계가 소설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되어 있고, 『명예영사』에서는 부자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설정되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 『명예영사』와 『인간의 요소』에서는 친자가 아닌 가운데 친자와 같은 사랑과 책임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린의 전반적인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런 이유는 우선 그린의 아버지 관계로 그가 생각하는 가톨릭 사즘(Catholicism)을 집약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린의 아버지 관계 속에서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사랑과 책임의식을 찾고,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 윤리가치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린의 아버지 관계는 사랑과 책임의식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II. 그린의 절망적 시선

그린이 젊었을 때부터 세상에 대한 낙관주의로 산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어렸을 때에는 세상에 대한 어두운 생각이 많았다. 그것은 가정환경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된다. 많은 그린의 연구자들이 그린의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1904년 영국의 버크햄스테드(Berkhamsted)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찰스 그린(Charles Greene)은 그 지방 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고 당시에 그린도 그 학교에 다녔다. 그린의 가문은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어서 서인도제도까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린의 문학적 소양은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린의 어머니의 사촌은 유명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이 있고, 그의 삼촌은 처칠(Churchill)의 절친한 친구로 해군정보국(Naval Intelligence)를 만든 그레이엄 그린 경(Sir Graham Greene)이다. 그린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를, “온통 녹색의

문”(green-baize door)(Sherry 33)이 도처에 있는 학교환경에서 자신의 격리감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한다. 그린의 이런 언급은 아버지가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얼마나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생활했는지를 암시해주는 말이다. 그는 1968년 TV 제작자인 크리스토퍼 버스톨(Christopher Bustall)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할지 모르는 희망 없는 상태”(a hopeless position of divided loyalties)(West 3 개인용)에 있었다고 술회한다. 그 시절 그린의 괴로웠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아버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소년기의 말썽꾸러기 짓이나 폭력 등에 자연스럽고 노출되는데 반하여, 그린에게는 그런 생활과는 거리가 먼 생활에서 오는 격리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형 레이몬드(Raymond)가 같은 조건의 환경에서도 학교에서 리더 역할을 잘 하는 학생으로 생활한 것을 보면 그린의 학교생활의 부담감은 기질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급기야 그린은 16세 되던 해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가출을 했다. 그 후 곧바로 그의 부모는 그린을 심리치료사인 리치몬드(Richmond)에게 보내어 6개월 동안 치료시켰다. 그린 이후 6개월 동안의 치료기간이 자신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는 것을 보면 심리불안이 병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린의 정치적 성향의 뿌리가 될 만한 요소는 그린의 옥스포드 재학시절에 친구인 콕크번(Corkburn)의 영향을 받아서 벌써 상당히 기성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기질을 보여주었다. 그의 아버지 찰스 그린은 아들이 볼셰비즘(Bolshevism)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은근히 걱정했을 정도이다. 그린은 실제로 1925년에 공산당에 잠깐 가입한 적이 있다(Yamagata 413).

이처럼 그린의 세상을 바라보는 절망적인 시선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그는 현실이란 불완전하고 서로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안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린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브라우닝(Browning)의 시를 좋아했는데, 그가 1971년에 발표한 자서전인 『어떤 인생』(*A Sort of Life*)에서 밝히기를, “자신의 모든 소설의 제사(epigraph)로 브라우닝의 시, 「블로그래프 주교의 변증」(‘Bishop Blougram’s Apology’)을 사용

해도 좋겠다고 언급했다.(SL 85) 이 시에 언급된 구절 몇 군데—‘위험한 가장자리’, ‘정직한 도둑’, ‘부드러운 살인자’ 등 . . . —만 살펴보다라도 그린의 생각하는 불완전한 현실의 양면성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그가 어떤 의식으로 작품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린의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방향으로 모색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한 예를 1969년 함부르그(Hamburg)의 세익스피어 상 수상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연설에서, “작가는 직업의식에서 가톨릭 사회에서는 개신교 신자처럼, 개신교 사회에서는 가톨릭 신자처럼 살아야 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자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Stratford 609)라고 밝혔다. 그는 현실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류의 자리가 아닌 변방의 자리에서 늘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고뇌하는 작가로 살았다. 이런 미래를 꿈꾸는 그린의 비전의 핵심을 이루는 한 단면이 아버지 관계로 나타나는 사랑과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린의 소설작품 속에 나타난 절망적 시선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1934년에 발표한 그린의 “첫 정치소설”(Allain 87)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장』은 1920년대 세계의 경제공황으로 경제적 위기가 극에 달하고,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 사상이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일종의 “상황적 영국소설”(Smith 117)이다. 주요 등장인물인 짐 드로버(Jim Drover)는 버스 운전사로 힘없는 계층의 사람이다. 그는 실제로 공산당이 아니지만 공산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기 부인을 때리는 경관을 목도하고, 우발적으로 가지고 있던 칼로 경관을 살해하게 된다. 그의 살인사건은 곧 법정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치문제로 비화하여, 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힘없는 당사자가,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논리에 따라, 객관성을 결여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부조리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법의 집행자로 대표적인 인물인 부서장은 드로버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처형재판의 “빌라도처럼”(DeVitis 59), 이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권력의 뜻에 굴종해버린다.

다음으로 1938년에 발표되고, 주제가 오락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전환된, “전이적 위치에 있는 작품”(Bergonzi 99)인 『브라이튼의 막대사탕』에서 주

인공 핑키(Pinkie)는 암흑가의 두목으로 활동하는 17세의 청년이다. 그는 빈민가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서 희망 없는 생활을 이어간다. 아주 어렸을 때 면도칼을 가지고 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곤충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경험이 청년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나서, 그는 갱 두목으로서 서슴없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악행을 거듭한다. 그린의 비평가들은 그린이 핑키를 이처럼 악의 화신처럼 그리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그린의 실제적인 종교적 성향이 이 세상을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관계로만 이해했던 마니주의(Manichaeism)자이거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얀센주의(Jansenism)자라고 말하고 있다. (Choi 549) 그린 자신도 「잃어버린 유년시절」(“The Lost Childhood”)이라는 짙막한 글에서, “선은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단 한번 나타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악은 항상 인간의 몸속에서 자기 집을 찾을 것이다”(CE 17)라고 밝혀, 그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그린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절망적 시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소설은 1948년에 발표된 『사건의 핵심』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스코비(Scobie)는 정의로운(Just)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 부서장이다. 그는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범적인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자기 직무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그가 직무상의 일로 한 난파선 사건을 맡아 조사하게 된다. 이 사건이란 어뢰에 의한 폭발로 배가 난파되어 40일 동안 바다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항구에 들어오게 된 배의 승선객들을 조사하는 일이다. 스코비는 여기에서 특별히 한 어린아이와 19세의 미망인에게 관심이 쏠린다. 어린아이는 6살인데 그의 부모는 배안에서 이미 죽었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앙상한 뼈만 남아있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겨우 숨만 할딱 거릴 정도의 상태이다. 스코비는 이 아이를 보며 너무 어린 나이에 그에게 가해진 비참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불쌍한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 그런데 스코비는 이 아이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난파선에서의 환경이란 그 배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한정된 물과 양식 등 여러 가지 극히 제한적 조건에 처해진 상황이며,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그들이 구조 될지 기약이 없어서 절망으로 가득한 환

경이기 때문이다. 스코비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안 사실이지만, 거기에 있었던 힘이 좀 더 나은 어른들이 자기의 몫을 이 아이에게 먹게 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코비는 이 아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숙명적으로 맞닥뜨려진 비참한 현실을 보며, 이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한 것과 불행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소설의 작중화자는 스코비의 이러한 현실인식을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HM* 124)라고 부르고 있다. 그린은 마리아 쿠토(Maria Couto)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는 비판론자이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자이다”(214)라고 밝힌 대목은,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정리한 생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즉 그린은 세상을 비극적이고 부조리한 것으로 바라보지만, 그 안에도 희망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희망의 끈이 그의 아버지 관계로 나타난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다.

III. 아버지 관계로 나타난 사랑

앞 장에서 필자는 그린의 전기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그의 성격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의 작품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린의 절망적 시선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린의 주요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관계로 나타난 사랑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뎀나 어디네스트-벌컨(Daphna Erdinast-Vulcan)은 그의 저서 『그레이엄 그린의 아이 없는 아버지들』(*Graham Greene's Childless Fathers*)에서 아버지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아버지”(the biological father)이고, 두 번째는 “은유적인 아버지”(the metaphorical father)이고, 세 번째는 “하늘의 아버지”(the Father in Heaven)(2)이다. 다음에 분석하려고 하는 다섯 작품에서도 벌컨의 세 가지 유형의 아버지 관계가 모두 그려지고 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이기에 그 사랑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당위적 사랑이다. 다음으로 은유적인 아버지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를 자식 간의 관계로 이입하여 적용하여, 그

사랑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영적이고 우주적인 사랑으로 가톨릭시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개인의 수직적 관계가 있고, 개인과 개인의 수평적 관계의 대표적인 사랑은 형제애이다. 톨스토이(Tolstoy)는 그의 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What is Art*)에서 인류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종교의식으로서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녀됨”(the conscious of sonship to God)과, “사람들에 대한 형제애”(the brotherhood of men)(130)이다. 인간은 모두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평등한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그린의 정치소설에 속하는 『아바나의 요원』과 『인간의 요소』에서 아버지 관계로 나타난 사랑과 비전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종교소설에 속하는 『권능과 영광』, 『명예영사』 그리고 『키호테 신부』에서 아버지 관계로 나타난 사랑과 비전을 중점적으로 살펴려고 한다. 『아바나의 요원』은 스파이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정치소설이다. 그린은 이 소설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박진감 넘치는 스틸러 기법과 더불어서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장면을 함께 묘사하고 있어서 이 작품을 “블랙 코메디”(Sharrock 221)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워모드(Wormold)는 아내가 미국인과 눈이 맞아서 가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인 밀리(Milly)와 단 둘이서 산다. 워모드는 진공청소기 장사를 해서 근근이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그런데 그가 정보국 간부의 회유에 의해서 첩보원 역할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된다. 사실은 그 당시 워모드는 돈이 궁한 상태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밀리가 철없이 가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말을 사 달라고 졸랐는데, 워모드가 그 청에 못 이겨 사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돈을 구할 일이 막막했다. 바로 그때 정보국의 호손(Hawthorne)이 자신의 첩보원으로 일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서 워모드는 거기에 넘어가고 만다.

워모드는 호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보원이 됐지만 정보원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다만 호손의 요구에 의해서, 가령 오리엔테 힐스(Oriente Hills)의 군사시설을 사진 찍어 보내라든지, 다른 첩보원을 포섭하여 동태를 파악하라는 등의 일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거짓 사진을 보내거나 공개된 조직의 명단을 보고 당사자와 접촉도 없이 그 사람

을 정보원이라고 허위로 보고한다. 그런데 그 후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자신이 허위로 보고한 정보원들이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의문의 죽음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무고하게 희생당한 최초의 인물이 비행기 조종사인 라울(Raul)이다. 정보당국은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라울에게 중상을 입히는 폭력을 가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모드의 절친한 친구인 하셀바하(Hasselbacher) 의사에게 라울을 치료하지 말라고 협박하여 결국 라울은 치료를 못 받고 죽게 된다. 일이 이쯤 되어서야 위모드는 정보당국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잔혹성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한다. 위모드는 정보국의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행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일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 위모드는 친구인 의사 하셀바하가 정보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평소 그렇게 불신했던, “왕국, 공화국, 권력”(OH 58)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도 보게 된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보당국과의 관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위모드가 차츰 정보당국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정보당국에 대해서 불충성을 결심한다. 도리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힘을 다해 보호하는 일에 가담한다. 위모드가 이렇게 정보당국에 은밀히 저항하고 주변의 인물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는, 조직의 이익보다는 개인에게 가치를 두는 그의 의식이 있다. 위모드의 이런 의식은 그와 딸 밀리의 관계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위모드는 아내의 가출이후 딸과 함께 살면서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딸에 대한 “두려울 정도의 책임감”(fearful responsibility)(Kulshesta 212)은 더욱 강해져서 딸의 장래와 행복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위모드는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가령 뉴턴(Newton)이나 루더포드(Rutherford)의 위대한 과학지식까지도 그것들이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인류에게 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영속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모드는 도리어 하찮게 보이는 서커스 단원들의 공연행위가 더 진정성이 있고, 더욱 가깝게는 딸과 함께 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부녀간의 사랑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모드의 모든 행위의 저변에는 “그의 개인주의에 대한 확신”(an assertion of his individuality)(Kulshesta 213)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개인에게 무한한 가치를 두는 위모드의 생각은 자신의 여자 정보원인 베아트리체(Beatrice)와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들은 처음에는 정보조직 내의 사무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것을 중시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베아트리체는 불란서계의 영국인 여성으로 위모드와는 달리 정보업무에 밝고 능력이 있는 미혼의 여성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업무에 성실한 것만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위모드와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보당국의 비정함과 불의 등에 회의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어수룩해 보이는 위모드에게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를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위모드의 인간적인 모습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 그녀는 위모드에게, “당신은 딸 밀리에게 성실합니다”(OH 189)라고 말할 만큼, 위모드의 딸에 대한 사랑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어떤 것도 가정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인간보다 더 미묘한 것이 없다”(OH 217)고 고백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드디어 위모드와 비아트리체는 그들이 진정하다고 여기는 가정을 꾸미는 다행한 결말을 맺는다.

『인간의 요소』도 스파이를 소재로 하는 정치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캐슬(Castle)은 영국비밀정보처(British Secret Service)에서 삼십년 동안 일했지만 여전히 하급직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직장에서 그는 크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는 이런 평범한 직장인을 통하여 정보국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성격과 윤리의식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는 여기서 불가피하게 정보국의 하급직원인 캐슬과 정보세계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며 조직에 충성하고 있는 그의 상사들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개인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캐슬에 관한 이야기는 7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고,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토리아(Pretoria)이다. 그곳 현지에서 캐슬은 영국의 정보원으로 일했다. 그는 현지 흑인여성인 사라(Sara)라는 인물에게서 업무상의 협력과 도움을 받고 일하다가 급기야는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종족관계법에 따라 외국인과 자국민이 사랑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캐슬과 사라는 국가안전처의 책임자인 물러(Muller)에

게서 조사를 받고 사라를 감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다급해진 처지에서 사라를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캐슬의 친구인 변호사 카슨(Carson)이다. 그런데 캐슬에서 닦친 진짜 문제는 또 다시 시작된다. 공산주의자인 카슨이 캐슬에게 정보국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이다. 캐슬은 위험을 무릅 쓰고 카슨에게 비밀정보를 알려준다. 그 정보는 소련으로 넘어가고, 얼마 안 있어 영국의 정보당국은 자국의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곧 내부조사를 시작한다. 이 조사에서 캐슬과 함께 일하는 동료 데이비스(Davis)가 정보를 넘긴 자로 오인되어 아무 잘못이 없이 은밀히 희생되고 만다. 캐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보당국의 불의와 비정함에 몸서리를 치며, 정보당국이라는 것이 더 이상 충성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게 된다. 이후 전개되는 캐슬의 일관된 행동은 정보당국에 대한 불충성 내지는 내적 저항의 길이다. 마침내는 영클 리머스(Uncle Remus)라는 무서운 계획에 캐슬은 적극적으로 간여한다. 영클 리머스의 계획이란 서방의 열강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자원에 욕심을 가진 불순한 의도에서, 만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민 폭동이 일어날 경우에 제압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다는 내용이다. 캐슬은 서방열강들이 주도해서 만든 이 비밀 계획을 그들과 냉전관계에 있는 소련으로 정보를 보낸다.

이처럼 캐슬이 자신의 조직을 배반한 가장 큰 이유는 영클 리머스가 실행되었을 경우, 많은 죄 없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힘없는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인간애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런 생각을 가속시킨 것은 희생당하는 국민이 자기 부인인 사라의 국민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캐슬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사실 이 소설에서 캐슬은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그의 깨끗한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맑은 두뇌”(clear-headed)(Rao 190)를 가진 사람이다. 캐슬의 가족은 부인 사라와 아들 샘(Sam)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아들 샘은 캐슬의 친 아들이 아니라 사라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임신해 있었던 다른 남자의 아들이다. 이 소설에서 캐슬이 어떻게 샘을 친 자식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놀랍게도 캐슬은 지금 샘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낀다. 인간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생물학적 관계이다. 그러기에 그 관계는 숙명적 관계이

고, 그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랑이나 책임감은 거의 본능적이다. 많은 경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 보면 거기에 나타난 사랑이나 책임감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당위적인 것이 된다. 어느 날 사라가 캐슬에게 자신들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쓸쓸하지 않느냐고 묻자, 캐슬은 “뺨에 대한 책임감으로 충분합니다. . . . 뺨이 내 아들이 아니고 당신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뺨을 사랑합니다”(HF 21)라고 말한다. 여기서 캐슬의 뺨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본능적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이성적, 실천적인 사랑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슬은 영국정보국의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소련으로 탈출하지만, 사라의 여권이 없는 뺨을 두고 영국을 떠날 수가 없어서 영국에 그대로 체류하게 된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족을 소중히 여겼던 캐슬과 그의 가족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로 헤어진 채, 재회의 기약도 없이 어찌다가 한번 씩 연결되는 전화선에 그리움과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 이 소설에서 희망의 분위기는 애잔하다. 커프(Cuffe)는 희망이 없는 이들의 현실을 지적하여, “바람이 거세고 축축한 11월을 거쳐, 결국엔 무자비하고 끝없고 파괴해버리는 눈으로 가득한 모스크바”(311)라고 비유한다. 그린은 『인간의 요소』에서 소시민의 삶을 통해서 국가나 조직이 개인의 삶이나 가치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그 국가나 조직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두 말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권능과 영광』은 그린의 대표적인 종교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위스키 신부(whiskey priest)인데,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 그는 술을 가까이 하는 신부이다. 여기서 술은 두 가지 양면성을 의미한다. 첫째로는 술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고 때로는 인간적인 약점을 숨김없이 노출시키는 투명성을 보여지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술은 인간적인 약점을 더욱 강화시켜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권능과 영광』에서 위스키 신부와 대조적인 대표적인 인물은 공산경위이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 이상향을 현실세계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열렬한 정치이상주의자이다. 공산경위에게 술이란 자신의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소설에서 위스키 신부와 공산경위의 이런 종류의 “긴장관계”(Sedlak 615)는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권능과 영광』의 배경은 공산정권이 교회를 탄압하는 남미의 멕시코이다. 공산정권은 신부들이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물론, 독신인 그들에게 결혼을 강요하여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놓는 일을 벌인다. 위스키 신부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산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비밀리에 미사를 집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계속한다. 자연이 그는 공산정권에 쫓기는 사람이 되어, 이 소설의 구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도피와 추적의 궤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스키 신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과정에서 불안을 덜어내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끔 술을 마신다. 여기에 더하여 신부로서 무척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타가 생각하는 사생아인 딸 브리지다(Brigida)를 두게 된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신부로서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종교의 계율을 어긴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어유카코(Ayukako)의 지적처럼, “죄 된 행위의 결과가 그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참회하고, 겸손하기에 이르는 동기”(85)가 된 점은 사실 가톨릭시즘의 역설 중 대표적인 것이다. 즉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위스키 신부는 딸의 육신적 아버지로서 느끼는 책임과 사랑을 통해, 영적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종교적 성숙을 보여준다. 위스키 신부는 육체적 아버지 관계와 영적 아버지 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는 같은 맥락의 관계임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현상금이 걸리고 쫓기는 중에도 브리지다가 있는 마을에 들려 브리지다를 오랜 만에 만나지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헤어질 때에는 위협을 무릎 쓰고, “사랑한다. 내가 네 아버지이다”(PG 82)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정작 브리지다는 그 말을 듣고도 무덤덤하지만, 위스키 신부는 딸을 버리고 간다는 죄책감으로 가슴 아파한다. 위스키 신부의 딸에 대한 애뜻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어린애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PG 173)고 생각하게 된다. 분명히 위스키 신부는 아버지 관계 속에서의 본능적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폭 넓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는바 본질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 위스키 신부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전보다 더 잘 감당한다.

위스키 신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소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여정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마지막 부분에서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다. 위스키 신부에게는 소설의 중반부터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혼혈인이 있었다. 혼혈인이 위스키 신부와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동행을 허락해달라고 말하지만, 위스키 신부는 그가 자신에게 걸린 현상금 때문에 기회를 잡아 신고하려고 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위스키 신부는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뿌리치지 않는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생각한다. 예수는 돈이 필요해서 배신하려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고 생각한다. 위스키 신부는 자신도 돈 아닌 그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고, 예수는 그런 나를 위해 죽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예수 앞에 자신과 혼혈인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위스키 신부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제 곧 자유의 땅인 라스카사스(Las Casas)를 눈앞에 두고 그곳으로 떠나려는 순간 혼혈인이 다시 나타나, 한 미국인 강도가 총상을 입었는데 고해성사를 위해 신부를 불러달라고 말했다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고 부탁한다. 위스키 신부는 혼혈인의 속셈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정말 강도가 고해성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와 함께 되돌아가다가 당국에 신고 되어 붙잡히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딸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사랑을 넘어서서, 신부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Kelly 49)에서 비롯된 사랑이 그의 운명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위스키 신부는 그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을 맞고 있는데, 지금껏 쫓겨왔던 위스키 신부와, 신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공산경위의 마지막 대면은 인상적이다. 공산경위는 위스키 신부를 보며 자신이 승리했다거나 미래의 희망에 부풀어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도리어 위스키 신부의 담담한 표정에서 그의 죽은 후의 희망에 굴복당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반면에 위스키 신부는 혼혈인, 공산경위 등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이로써 공산주의 이상향을 꿈꾸며 희망을 가졌던 공산경위는 희망이 사라지고, 반면에 절망 속에서 쫓기던 위스키 신부는 비록 변변치 못한 빈손과 다름없이 아버지 하나

님에게로 간다는 회한 속에서도, 더 큰 내세의 희망을 바라보며 담담히 이 세상과 작별하는 대조적인 모습은 영의 세계의 신비를 나타낸다. 아담슨(Adamson)은 위스키 신부로 대표되는 “신의 종교”(religion of God)가 공산경위로 대표되는 “인간의 종교”(religion of man)(62)를 압도한다고 단언한다.

『명예영사』도 크게 보면 종교소설에 속하는 소설이지만 이 소설의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종교적 참여와 정치적인 참여, 그리고 감정적인 참여가 함하여 단일한 매끈한 주제”(Oprey 127)를 이루고 있는 소설이다. 그린의 소설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는 브레넌(Brennan)은 이 소설이 “정치적 행동과 소설의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이 가장 성공적으로 결합된 작품”(Brennan 144)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이 소설의 플롯(plot)은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주인공들의 아버지 관계가 가장 많이 엮여져있다는 점 소설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미혼의 젊은 의사인 에드아르도 플라르(Eduardo Plarr), 전직 신부로 반정부 활동을 하는 레온 리바스(León Rivas)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영국 명예영사인 찰리 포트넘(Charley Fortnum) 등이다. 이 소설의 배경은 아르헨티나의 소도시인 코리엔테스(Corrientes)이고 당시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이다.

이 소설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밤 늦은 시각에 플라르는 옛 친구인 리바스에게서 급히 어떤 장소로 왕진을 와 달라는 전화를 받는다. 플라르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리바스 일당에게서 영국 명예영사인 포트넘이 미국대사로 오인되어 인질로 잡혀온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플라르는 포트넘과는 초면이 아닐 뿐더러, 플라르는 사창가 출신으로 포트넘과 결혼한 20세를 갓 넘은 클라라와 최근에 동침한 적이 있어서, 플라르, 리바스, 그리고 포트넘의 관계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로 얽혀있을 뿐 아니라 남녀 간의 애정, 윤리문제로 더욱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되어버렸다. 플라르는 리바스에게 포트넘이 인질로서의 가치가 없으니 풀어주자고 제안하지만 리바스는 그렇게 될 경우 아무 소득도 없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신변의 위험만 가중될 뿐이라고 하면서 그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당국에 그들의 정체와 소재가 파악이 되어, 이들은 인질을 잡아온 빈민가의 오두막집에서 포위를 당하는 신세가 된다. 이 소설의 집약적 스토리 전개는 밖에 경찰병력에 의해 포위당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에 오두막집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이다. 이곳에서 포트넘이 인질로서 안전이 극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내 클라라와 임신 중인 아이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너무 진실하고 따뜻한 것을 플라르가 목도하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에는 플라르가 포트넘의 결혼에 대해서, 노년에 자기를 돌보아줄 가정부와 다름없는 존재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플라르는 포트넘의 꾸밈없는 사랑에 감동되어, 자신의 아버지 나이 또래의 포트넘을 보고 아버지를 유추하고 연상한다. 사실 플라르는 오랜 기간 동안 파라과이에서 반정부운동을 하며 쫓겨 다니는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지금까지 쪽 살고 있다.

플라르가 아버지를 그리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친구인 리바스에게 그의 아버지는 경멸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로서, 말로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가나 부자들을 변호하며 자신의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리바스는 변호사가 되려다 진로를 바꾸어 신부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개척해야 하는 현실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너무 미온적인 신부들의 태도에 회의를 느껴, 도중에 포기하고 반정부 게릴라 운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리바스의 신학사상은 교회가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급진적 신앙이지만, 그 저변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리바스는 모두 언제 생명이 끊길 줄 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오두막집 안에서 포트넘에게 고해성사를 제안한다. 리바스는 전에 제단에서 신부와 신자로서 만났던 포트넘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라서,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을 넘어서서 믿는바 사죄함의 은총을 입어 최후를 준비하기 위한 사역을 한다. 포트넘은 리바스의 이런 모습을 보며 회미했던 자신의 신앙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Father, Father, Father)(HC 247)이라고 간절히 부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편 포트넘은 순간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자신의 친아버지를 생각한다. 포트넘은 어렸을 때 자신이 말에서 떨어졌을 때에도 훌륭한 승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은 겪어야 한다고 하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거두고 이제는 그를 이해한다. 그 후 곧 이어 플라르와 리바스는 포위하던 경찰의 총에 맞아 죽는다.

포트넘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집을 나간 오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클라라의 말을 듣고 그녀의 불우한 환경을 이해한 뒤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플라르의 아이를 임신한 클라라까지도 이해한다. 그리고 포트넘은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플라르의 세례명인 에드아르도(Eduardo)라고 짓자고 클라라에게 말한다. 이와 같은 포트넘의 제안은 플라르가 자신의 아들을 뒤늦게 “희망의 긍정적인 힘”(Miller 134)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플라르의 희망을 포트넘이 그 희망을 계승한 것이다. 플라르와 리바스는 비록 이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영적으로는 무의미하게 사라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열려진 미래를 기억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포트넘과 클라라에게는 더 살아야하는 현실세계가 남겨져 있고, 태어날 에드아르도를 통해서 현실세계 속에서 플라르, 리바스 그리고 포트넘과 클라라의 희망은 계속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아버지 관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는 아버지 관계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숙명적인 관계이다. 두 번째로 아버지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랑의 공여자는 물론 아버지로서 그 사랑이 큰 사랑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으로 자식에 대한 책임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네 번째는 아버지 관계는 설령 중간에 원만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할 관계이다. 그것의 종교적 표상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다섯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미래에 희망을 두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관계로 나타나는 희망의 비전을 고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관계로 나타난 사랑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V. 결 론

그린의 작품 중에서 희망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은 그린

이 1982년에 발표한 『키호테 신부』라고 할 수 있다. 에히바자(Echevarria)가 말하기를, “『키호테 신부』가 그린의 마지막 소설답게 그의 신앙적 연륜이 축축이 배여 있는 작품”(79)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이 그린의 마지막 종교소설이고 그의 말년의 소설로서 그린의 정치관, 종교관 그리고 세계관이 집약되어 있는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 키호테 신부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사랑은 앞에서 분석한 네 작품들의 아버지 관계로 나타난 사랑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소설의 스토리는 스페인의 라만차(La Mancha) 지역의 엘 토보소(El Toboso)에서 대사제(Monsignor) 칭호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키호테 신부와 그 지방의 전직 시장이며 공산주의자인 산초(Sancho)가 함께 마드리드와 살라만카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대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여행의 동행자 구성자체가 재미가 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와 사랑을 믿는 신부와 무신론과 평등적 사회를 위한 변혁을 꿈꾸는 공산주의 시장이, 전혀 다른 신분과 배경으로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어 보이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부와 시장이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도 다르지만, 화자인 신부가 시장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양자의 보편적 희망을 거론한다. 시장의 희망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오직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인 반면에, 신부의 희망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톨릭시즘의 영적인 구속사 속에서 신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신부는 시장에게 만약 완전한 물질적 번영과 사회적 평등이 완성된 사회가 도래하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란 없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반면에 신부에게 영적인 희망이란 항상 미래의 시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희망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부의 희망과 시장의 희망이 상이한 것 이외에 이들의 상이한 점은 이들 두 사람 이외의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 이들 두 사람의 성격이 유추된다. 신부와 시장이 여행 도중에 신부는 자동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어 응급조치로 주사를 맞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오세라(Osera) 수도원의 교회당으로 들어가 성찬용 접시와 성찬배도 없이 혼자 미사를 드린다. 키호테 신부는 어둠 속에서 산초 시장을 발견하고 그에게 있지도 않은 성체를 손가락 사이로 내밀었다가 끝내는 바닥에 쓰러져서 회생하지 못하고 만다. 이 광경을 산초 시장은 물론이고 오세라

수도원을 담당하고 있는 레오폴도(Leopoldo) 신부와, 이그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ra)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하는 권위자로 유명한 필빔(Pilbeam) 교수가 근거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키호테 신부가 드린 미사에 대해서 신앙적인 토론을 벌인다. 산쵸 시장은 30년 넘게 미사에 참석하지 않아 자신은 영성체를 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고백할 때, 필빔 교수와 레오폴도 신부는 서로 극명하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다. 필빔 교수는 키호테 신부가 성찬배나 성찬 빵도 없이 미사를 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은 미사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레오폴도 신부는 그것은 신의 자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축복기도를 받으라고 권유한다. 필빔 교수는 물리적인 사실만을 신봉하는 사람이기에 허구는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레오폴도 신부는 허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진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보스코(Bosco)는 레오폴도 신부의 믿음과 필빔 교수의 확신의 차이를, “도약의 은유”(hopping metaphor)(148)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산쵸 시장은 이들 둘 중에서 누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까? 이 소설에 이런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독자는 산쵸 시장이 레오폴도 신부의 생각을 지지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유추 할 수가 있다.

『키호테 신부』에 나타난 사랑과 희망은 앞에서 분석했던 네 작품들과는 좀 더 발전된 초월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앞에서 분석했던 작품들에서는 아버지 관계에 집약된 사랑과 희망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키호테 신부』에서는 현세적인 사랑과 희망보다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사랑과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브레넌(Brennan)은 『키호테 신부』 작품이 그린 자신의 오랫동안의 영적탐색의 결정체라고 극찬하면서, 이 작품이 그의 절박한 도덕성을 보여주고, 인간의 구속적 측면을 생각할 때 이성적 회의주의에서 좀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신학적인 전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147). 신학자이면서 비평가인 보스코는 이러한 영적인 사랑의 성격을, “신과 인간의 사랑의 형태인, 자기를 비우는 사랑”(149)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세드락(Sedlock)은 말하기를, “키호테 신부가 추구하고, 그린은 신과 인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에 의해서 규명 된다”(615)고 밝히, 그는 사랑과 신앙 혹은 희망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

다. 다음으로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가톨릭 신앙과 공산주의 이념이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동반자적인 화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곧 그린의 사랑과 희망의 비전이다.

인 용 문 헌

- Adamson, Judith. *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 London: Macmillan, 1990. Print.
- Allain, Marie-Françoise. *The Other Man: Conversations with Graham Gree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1. Print.
- Ayukako, Elizabeth T. *Graham Greene and the Question of Faith*. Dignitypublishing, 2015. Print.
- Bergonzi, Bernard. "Upon This Rock: The Launch of a Catholic Novelist."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 of Graham Greene*. Ed. Wm. Thomas Hill. New York: Peter Lang, 2002. 81-108. Print.
- Bosco, Mark. *Graham Greene's Catholic Imagination*. Oxford: Oxford UP, 2005. Print.
- Brennan, Michael G. *Graham Greene: Political Writer*.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6. Print.
- Choi, Jae-Suck. "Graham Greene's Vision of Hope."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 of Graham Greene*. Ed. Wm. Thomas Hill. New York: Peter Lang, 2002. 549-576. Print.
- Couto, Mario. *Graham Greene: On the Frontier*. New York: St. Martins, 1986. Print.
- Cuffe, E. D., "Tangled Webs, Words, Worlds," *America* C X X X V III(1978): 310-311.
- DeVitis, A. A., *Graham Greene*. Boston: Twayne, 1986. Print.
- Echevarría, Berta Cano. "Wine, Priests and Guardias: Spanish Decaying Clichés in Graham Greene's *Monsignor Quixote*." *Lonely Without God: Graham Greene's Quixotic Journey of Faith*. Ed. W. T. Hill. Bethesda: Academica Press, 2007. Print.
- Erdinast-Vulcan, Daphna. *Graham Greene's Childless Fathers*. London: Macmillan Press, 1988. Print.
- Greene, Graham. *The Power and the Glory*. London: Heinemann, 1940. Print.
- _____. *The Heart of the Matter*. London: Heinemann, 1948. Print.
- _____. *Our Man in Havana*. London: Heinemann, 1958. Print.
- _____. *The Human Factor*. London: The Bodley Head, 1969. Print.
- _____. *Collected Essays*. London: The Bodley Head, 1969. Print.
- _____. *A Sort of Life*. London: The Bodley Head, 1971. Print.

- _____. *The Honorary Consul*. London: Bodley Head, 1973. Print.
- Kelly, Richard. *Graham Greene*. New York: Ungar, 1984. Print.
- Kulshrestha, J.P., *Graham Greene: The Novelist*. New Delhi: Macmillan Co. of India, 1977. Print.
- Miller, R. M., *Understanding Graham Green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0. Print.
- O'Prey, Paul. *A Reader's Guide to Graham Greene*. London: Thames & Hudson, 1988. Print.
- Rama Rao, V. V. B. *Graham Greene's Comic Vision*. New Delhi: Reliance Publishing House, 1990. Print.
- Sedlak, Valerie. "Beyond Theology and Ideology: The Monsignor's Mystical Quest."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 of Graham Greene*. Ed. Wm. Thomas Hill. New York: Peter Lang, 2002. 577-618. Print.
- Sharrock, Roger. *Saints, Sinners, and Comedians: The Novels of Graham Greene*. Tunbridge Wells and Notre Dame: Burns and Oates and U of Notre Dame P, 1984. Print.
- Sherry, Norman. *The Life of Graham Greene: Volume I, 1904-1939*. London: Jonathan Cape, 1989. Print.
- Smith, Grahame. *The Achievement of Graham Greene*. Totowa NJ: BARNERS & Noble Books, 1986. Print.
- Stratford, Philip. ed. *The Portable Graham Greene*. New York: Penguin, 1979. Print.
- Tolstoy, Leo. *What is Art?* Trans. Richard Pevear and Larissa Volokhonsky. London: Penguin Books Ltd, 1995. Print.
- West, W. J., *The Quest for Graham Green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Print.
- Yamagata, Kazumi. "Literature, Religion and Politics in Graham Greene."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 of Graham Greene*. Ed. Wm. Thomas Hill. New York: Peter Lang, 2002. 391-426. Print.

이광희

주소: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56 공주대학교 인사대 관광영어통역학과

이메일: leekh@kongju.ac.kr

논문접수일: 2017.12. 14. / 심사완료일: 2018. 01. 31. / 게재확정일: 2018. 02. 02.